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교역량 전년 대비 36.6% 감소

<표 V-1> 한-남아공 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 년도 | 수 출 | | 수 입 | | 교역량 | 무역수지 금 액 |
|---------------|-----------|-------|-----------|-------|-----------|-------------|
|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 |
| 2001 | 422,933 | -14.5 | 688,609 | -26.8 | 1,111,542 | -265,676 |
| 2002 | 394,491 | -6.7 | 603,137 | -12.4 | 997,628 | -208,646 |
| 2003 | 530,185 | 34.4 | 781,630 | 29.6 | 1,311,815 | -251,445 |
| 2004 | 959,433 | 81 | 998,904 | 27.8 | 1,958,337 | -39,470 |
| 2005 | 1,319,522 | 37.5 | 1,094,318 | 9.6 | 2,413,840 | 225,204 |
| 2006 | 1,794,231 | 36 | 1,385,063 | 26.6 | 3,179,294 | 409,168 |
| 2007 | 1,752,811 | -2.3 | 1,766,544 | 27.5 | 3,519,355 | -13,733 |
| 2008 | 1,397,158 | -20.3 | 2,159,240 | 22.2 | 3,556,398 | -762,083 |
| 2009 | 1,082,071 | -22.6 | 1,171,788 | -45.7 | 2,253,859 | -89,718 |
| 2010. 1~5월 | 640,045 | 75.3 | 785,132 | 138.2 | 1,425,177 | -145,087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 1992년 12월 1일 남아공과 공식 외교관계 수립후, 양국간 교역 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외교관계 수립전인 1985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는 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에는 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후 1995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관계가 탄력을 받으며 1997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심화되며 양국간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함.
 - 1998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002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냄. 2002년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10% 감소하며 8년만에 다시 10억 달러 밑으로 주저앉게 됨.
- 그러나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한-남아공 정부가 양국 관계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양자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양국간 교역규모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03년 무역규모는 1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31.5% 증가 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2007년에는 35억 달러로 3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함.
- 2008년말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며 2008년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율이 1%에 머무는 등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9년 동유럽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며 2009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36.6% 감소한 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림 V-1> 한-남아공 무역규모 추이

단위 : 천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0년 들어 양국간 교역규모는 다시 회복추세

- 2009년의 기저효과를 감안해야겠지만, 2010년 5월 현재 대 남아공 수출은 전년 대비 75.3% 증가, 수입은 138.2% 증가하며 세계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양국간 교역규모는 다시 증가하고 있음.

□ 광물자원의 대량 수입으로 대 남아공 상품수지 적자 지속

-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섬유제품의 수출급증에 따른 2005년 2억 달러, 2006년 4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 기록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상품수지는 적자를 기록중임. 대 남아공 상품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수지 적자는 주로 금, 은, 백금, 알루미늄, 철광 등 대량의 광물 자원 수입에 따른 것임.

□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최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로 2003년부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석유제품은 2008년까지 1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 남아공 수출 품목 3위에 해당되었으나, 2009년에는 1,300만 달러로 급감하게 됨.

<표 V-2> 대 남아공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명 | 2008 | | 2009 | |
|-------------|------|-------|------|-------|
|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 자 동 차 | 316 | -44.2 | 339 | 7.4 |
| 무 선 통 신 기 기 | 173 | -25.8 | 151 | -12.6 |
| 합 성 수 지 | 98 | -9.7 | 57 | -42.5 |
| 기타석유화학제품 | 42 | 64.6 | 35 | -16.8 |
| 종 이 제 품 | 48 | 13 | 35 | -27.4 |
| 철 강 판 | 40 | 18.6 | 32 | -19.8 |
| 자 동 차 부 품 | 23 | -7.5 | 23 | -1 |
| 고 무 제 품 | 18 | 0.3 | 21 | 18 |
| 건 설 광 산 기 계 | 81 | 14.8 | 21 | -73.9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입 품목은 합금철·선철 및 고철, 금·은 및 백금, 철광

– 2009년 우리나라 대 남아공 주요 수입 품목은 합금철·선철 및 고철, 금·은 및 백금, 철광 등임.

- 금·은 및 백금의 경우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최대 수입품목이었으나, 금광 고갈, 채굴 비효율성 증가 등 남아공 금광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수출감소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금 수입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9년 동 품목의 수입은 1.9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68.1% 감소하였음.

<표 V-3> 대 남아공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 품목명 | 2008 | | 2009 | |
|-------------|------|-------|------|---------|
| | 금 액 | 증가율 | 금 액 | 증가율 |
| 합금철선철및고철 | 467 | 58.2 | 206 | -55.9 |
| 금 은 및 백 금 | 608 | -13 | 194 | -68.1 |
| 철 광 | 185 | 10.2 | 142 | -23.5 |
| 동 제 품 | 171 | 3.9 | 137 | -19.8 |
| 알 루 미 늬 | 200 | 54.2 | 123 | -38.3 |
| 기 타 금 속 광 물 | 184 | 328.6 | 72 | -60.7 |
| 석 탄 | 46 | 114.9 | 66 | 43.1 |
| 철 강 판 | 59 | 72.7 | 32 | -44.9 |
| 자 동 차 | 0 | 136.4 | 26 | 133,009 |
| 기 호 식 품 | 42 | -23.4 | 19 | -55.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 남아공 직접투자 위축

-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직접투자는 1992년 첫 투자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1998년에는 4,13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직접투자세가 한 풀 꺾이며 2004년까지 감소추세가 지속되다가 2005년 2,680만 달러를 기록,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 2007~08년 대 남아공 직접투자액이 2,000만 달러를 상회하며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며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직접투자는 다시 위축됨.

<표 V-4> 대 남아공 직접투자현황 (2010년 3월 말)

단위 : 천 달러, 건

| 연도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송금횟수 | 투자금액 |
|------|------|-------|--------|------|--------|
| 2001 | 3 | 0 | 3,884 | 10 | 3,779 |
| 2002 | 3 | 1 | 664 | 1 | 161 |
| 2003 | 2 | 1 | 450 | 6 | 196 |
| 2004 | 1 | 1 | 800 | 2 | 123 |
| 2005 | 12 | 8 | 27,127 | 16 | 26,797 |
| 2006 | 11 | 4 | 6,238 | 26 | 5,980 |
| 2007 | 8 | 3 | 28,635 | 8 | 27,897 |
| 2008 | 7 | 3 | 28,207 | 13 | 21,942 |
| 2009 | 3 | 1 | 825 | 6 | 94 |
| 2010 | 0 | 0 | 0 | 3 | 375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투자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업

- 우리나라의 대 남아공 주요 투자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순임. 총 누적투자금액 1.7억 달러 중 도매 및 소매업은 1.2억 달러로 전체 투자규모의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3,060만 달러로 18.1%,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12.1%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들어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음.

<표 V-5> 대 남아공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 (2010년 3월 말)

단위 : 천 달러, 건

| 업종대분류 | 신고 건수 | 신규 법인수 | 신고 금액 | 송금 횟수 | 투자 금액 | 비중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3 | 1 | 145 | 1 | 25 | 0.1% |
| 광업 | 5 | 1 | 934 | 14 | 322 | 0.2% |
| 제조업 | 33 | 15 | 47,486 | 30 | 30,599 | 18.1% |
| 건설업 | 13 | 5 | 3,040 | 22 | 1,715 | 1.0% |
| 도매 및 소매업 | 42 | 14 | 132,061 | 55 | 115,630 | 68.3%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3 | 2 | 26,407 | 2 | 20,411 | 12.1%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 | 3 | 186 | 5 | 106 | 0.1%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3 | 3 | 1,000 | 8 | 507 | 0.3% |
| Total | 105 | 44 | 211,258 | 137 | 169,314 | 100.0%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진출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한전선

- 남아공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차, 이노랜드건설, 대우차, 대한전선, 포스코 등이 있음.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표 V-6> 대 남아공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 (2009년 9월 말)

단위 : 천 달러

| 투자 기업명 | 건 수 | 금 액 |
|-------------|-----|--------|
| 삼 성 전 자 | 6 | 48,857 |
| L G 전 자 | 4 | 42,407 |
| 이 노 랜 드 건 설 | 1 | 20,305 |
| 대 우 차 | 4 | 18,255 |
| 대 한 전 선 | 2 | 14,100 |
| 포 스 코 | 2 | 10,050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현황

□ 수은의 대 남아공 금융지원액은 1,093만 달러

<표 V-7> 대 남아공 수은 금융지원 현황 (2010년 5월 말)

단위 : 천 달러

| 구 분 | 승인액 | 집행액 | 여신잔액 |
|---------|--------|--------|--------|
| 수 출 자 금 | 4,097 | 4,097 | 4,097 |
| 해 투 자 금 | 4,000 | 4,000 | 4,000 |
| 매 입 외 환 | 2,142 | 1,238 | 1,238 |
| 보 증 | 1,720 | 1,591 | 1,591 |
| 총 계 | 11,959 | 10,926 | 10,926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의 대 남아공 금융지원액은 1,093만 달러로, 무역어음재할인 중심의 수출자금이 41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어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이 400만

달러, 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등 매입외환이 124만 달러 수준임.

2. 진출 확대 방안

가. 진출시 유의사항

□ 흑인경제육성정책(BEE)에 대한 철저한 이해

- 남아공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기업에게 남아공 경제정책의 핵심인 흑인경제육성정책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임.
 - 특히 남아공 투자기업 중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 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흑인경제육성정책이 요구하는 조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함. 남아공 정부는 심사 및 입찰 과정에서 흑인 경제육성정책 이행도를 평가하며,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금융 지원, 세금혜택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흑인경제육성정책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에 따르면 입찰 참여 및 사업 획득과 관련이 없는 기업도 개별기업 들이 동 정책에 대한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경우 높은 점수 획득을 통한 우대가 가능함.
 - 흑인경제육성정책은 남아공 투자 진출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외국계 기업들도 흑인육성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불안한 치안상황에 대한 대비

- 2008년 5월 반외국인 폭동이 발생하는 등 남아공의 불안한 치안 상황은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치안이 이처럼 불안한 이유는 흑인 계층의 높은 실업률,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 치안 인력 부족 등에 기인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함.

□ 높은 AIDS 감염률

- 남아공내 AIDS 환자 및 HIV 보균자 수가 600만명 이상으로 남아공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고 있음. AIDS 확산으로 남아공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90년 64세에서 2008년 50세로 감소하였음.
- AIDS 보균 인구의 증가는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져 소비 감소, 시장 축소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의 경직성, 숙련 인력의 부족

- 남아공 정부는 20%를 상회하는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남아공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된 편임. 고용안정을 위해 해고절차도 까다롭게 설정된 관계로 직원의 해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흑인 정권 출범 이후 숙련된 백인 인력의 해외이주로 남아공은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유출인력의 복귀, 기술인력 양성 프로

그램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내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전력, 위생시설 부족 등 여전히 열악한 인프라

- 남아공 인프라 시설이 아프리카 지역의 타 국가보다 잘 갖춰진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보다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2008년 남아공의 가정 전기 보급률은 60% 이상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23%)과 비교시 높은 편이지만, 기타 선진국 등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또한 남아공의 수도물 보급률은 87%, 위생시설 보급률은 67%로 OECD 국가 (10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나. 협력 유망 분야 및 진출 전략

□ 남아공 SWOT 분석

- 남아공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발달된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향후 아프리카 경제를 견인해 갈 것으로 전망되나, 높은 실업률, 불안한 치안상황, 높은 AIDS/HIV 감염률 등은 향후 경제성장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세계 경기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V-8> 남아공 SWOT 분석

| Strength | Weaknes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 - 풍부한 광물자원 - 발달된 금융산업 - 양호한 은행산업 건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란드화 가치 변동폭이 큰편 - 과거 인종분리정책에 따른 높은 실업률, 높은 빈부격차 |
| Opportunities | Threa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 - 높은 인구증가율 - 201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 세계 경기의 점진적 회복 -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인경제육성정책(BEE)에 대한 높은 준수 비용 - 높은 AIDS/HIV 감염률 - 2009년 선거이후 민영화 부진, 선심성 정책, 높은 인플레이션을 |

□ 광산업, 지분인수를 통한 진출전략

- 금, 크롬, 백금, 바나듐, 석탄,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 유용한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자원개발 기반시설이 양호한 남아공 광업의 성장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2002년 광물석유자원개발법을 새롭게 제정,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광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이미 유럽계 메이저 기업들이 남아공 광업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 시장진입은 어려운 편이지만, 현지업체에 대한 투자 및 지분인수를 통한 투자진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광산업의 경우, 초기 광산개발은 리스크가 매우 높으며 투자자금 회수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광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은 신규 광산개발보다 지분인수 등을 통한 시장진입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참고> 포스코 남아공 칼라하리 망간 광산 인수 사례

- 2008년 4월, 포스코는 국제 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남아공 칼라하리 (Kalahari) 광산 지분 13%를 인수하였음.
- 칼라하리 망간 광산은 세계 망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공 북부 케이프(Northern Cape)에 위치하고 있음. 동 광산에는 망간 광석이 최소 2,000만 톤 이상 매장되어 있으며, 망간은 철강 공정에서 탈산, 탈황, 철의 강도 및 인성 증대를 위해 필수적인 원료임.
- 인수는 포스코가 호주 현지법인 포스코오스트레일리아를 증자해 폴링허스트 (Pallinghurst) 컨소시엄에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포스코는 지분인수를 통해 세계 철강산업 성장에 따른 망간수요 급증과 가격 급등에 대비하게 되었으며, 2010년 생산 개시 이후 연간 망간 소요량중 25% 수준인 연 13만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됨.

□ 투자유치를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적극적인 활용

- 남아공은 물류비용 절감 및 면세혜택 등을 제공하는 산업개발지대 (IDZ)를 비롯, 사회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기술 및 인적자원개발 인센티브, 산업혁신 지원 인센티브 등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비된 상황은 아님.
- 이러한 상황하에 남아공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에 근거하기보다 투자 건별로 인센티브 제공을 투자자측과 협의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은 투자에 앞서 네트워크를 활용, 남아공 정부 및 투자유치 기관 등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남아공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발주 대비

- 남아공 정부는 현재 케이프 타운 (Cape Town) 내 1,930MW 규모의 Koeberg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중이며, 웨스턴 케이프 주에서 건설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2016년 가동될 예정임.
-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을 위해 남아공 정부는 원자력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인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을 현재의 5%에서 2025년까지 15%로 끌어올릴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미 지난 5월 남아공과 원자력 발전기술 연구개발 (R&D) 공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향후 남아공 원전산업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등에서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있을 발주에서 우리 기업의 빈틈없는 준비가 요망됨.

□ 남아공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건설업·IT 등에 대한 투자

- 남아공 자원분야의 경우 서방 다국적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지만, 남아공은 여전히 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국가로 자원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풍부함.
- 남아공 정부는 월드컵 개최를 통해 경기장 건설, 도로, 숙박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는바, 월드컵 개최로 2010년 국내 총생산이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남아공의 경제성장 전망에 맞물려 세계 각국에서 남아공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분석을 통해 남아공 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남아공내 빈민 규모가 1,0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우리기업은 향후 남아공 건설업, 특히 빈민 가내 주택 및 학교 건설 사업 등에 대한 발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또한 월드컵 이후에도 사회간접자본, IT 등 전문분야에 걸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 구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기업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흑인경제육성정책(BEE)의 적극적인 활용

- 과거 차별대우를 받아온 흑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중인 흑인경제육성 정책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정부, 공기업 등의 입찰시 흑인기업에게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입찰 발주처별로 우대 점수 비중은 다르지만, 흑인 지분 비율,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계획 등 주요 우대 항목을 충족시켜 최대 20% 가까이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음. 향후 입찰 참여시 이러한 우대 점수 획득을 위해서 특히 BEE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 대한전선의 BEE활용을 통한
남아공 광케이블 시장 진출 사례**

- 2000년, 대한전선은 남아공 현지 Aberdare사와 ATC사가 돌아가며 납품을 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점시장인 남아공 광케이블 시장 진출을 계획하였음.
-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 남아공 정부 및 국영기업은 흑인경제육성정책 (BEE)에 따라 흑인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부입찰제도를 운영 하고 있었으며, 이에 우리 기업 단독 입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대한전선은 이러한 흑인경제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현지 Malesela Technologies 인수 과정에서 회사지분의 일부를 흑인에게 양도해 입찰 참여시 흑인기업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음. 이후 M-Tec을 설립하여 우리 기업 최초로 남아공 정부 입찰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음.
- 2001년 당시 M-Tec은 남아공 국영 통신기업 Telkom이 발주한 광 케이블 공급입찰에 참가하여 2004년까지 25만 Fiber km를 3,500만 달러에 납품하기로 낙찰 받았으며, 이후 우수한 품질, 납기기한 준수 등을 인정받으며 계약을 3년 추가연장, 동 기간중 100만 Fiber km를 1억 달러에 공급하기도 하였음.
- 현재 남아공 전선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M-Tec은 종업원수 400명, 연간 매출액이 1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 하였으며, 주요 생산제품은 광케이블, 알루미늄 컨덕터, 동선, 전력 케이블 등임.